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11. 7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1,523.0p(+6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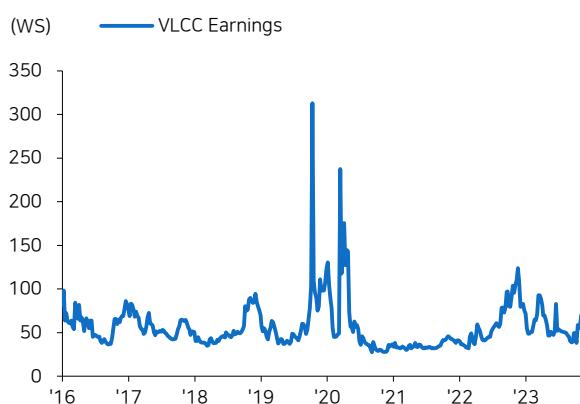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12.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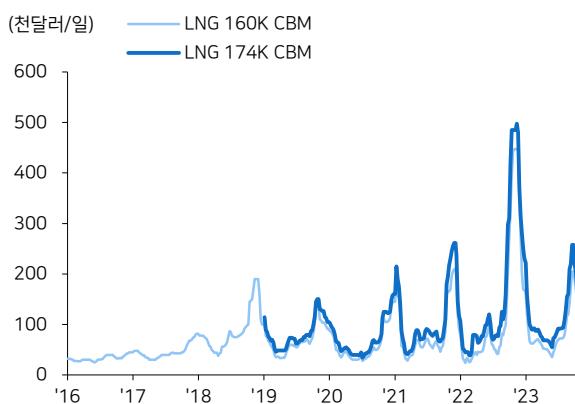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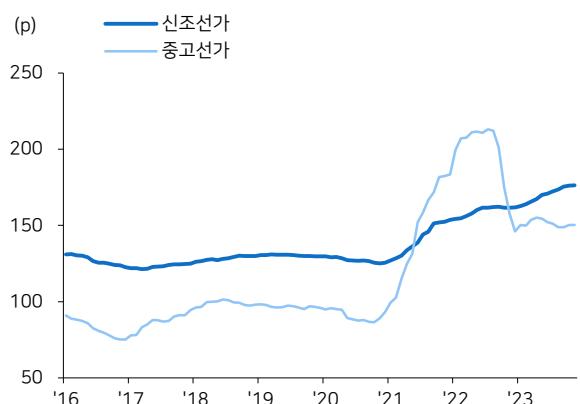
70.2p(+11.3p WoW)



LNG Spot 운임

161.3천달러(+2.5p WoW)
193.8천달러(+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6.2p(+0.2p WoW)
150.3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5.0달러(+6.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lawmakers back tougher sanctions on Iranian shipping

미국이 이란 석유 제재를 강화할 전망으로 보도됨. Stop Harboring Iranian Petroleum(SHIP) 법안이 하원에서 342대 62로 통과되었고 알려짐. 이란 석유 교역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자산동결 및 비자 발급 중단을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짐. 항구, 정제소 또는 운송업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etdfuf2p>)

Tight tanker market holds firm amid continued Saudi and Russia supply cuts

VLCC운임이 4개월래 최고수준을 달성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유지한다고 보도됨. 사우디아라비아는 12월에 내년 조치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짐. 러시아 역시 하루 30만배럴 수출 감축을 이어갈 계획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4zxw8c2d>)

Newbuilding prices diverge from earnings as they approach 2008 record, Clarksons says

선주들이 수익성이 평균보다 낮음에도 2008년 이후 최고 선가에 발주하고 있다고 보도됨. Clarksons 신조선가는 2021년초 대비 3분의 1이상 상승했는데, 15년래 최고 수준으로 언급됨. 제한된 조선소 슬롯 수와 인건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면 2012년 대비 여전히 최고 선가이지만, 2008년 피크대비 30% 낮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3puvskxs>)

North Sea, 세계최초 암모니아 추진 '컨'선 발주

노르웨이 North Sea Container가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연간 약 10,000톤의 암모니아를 사용해 노르웨이에서 매주 약 180톤을 병킹 할 예정으로 알려짐. 선가 및 건조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6년 인도될 예정임. (선박뉴스) (<https://tinyurl.com/mpz7hmen>)

하림 HMM 인수의 숨은 목적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되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업무 능력 입증이라는 관문만 남았는데, HMM 인수전이 경영권 승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보도됨. 김준영씨는 현재 JKL파트너스에서 수석운용역으로 근무하면서 HMM 인수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짐. 김준영씨의 하림지주 보유 지분은 사실상 22.47%로 최대주주로 언급됨. (조선Biz) (<https://tinyurl.com/3kvpuux4>)

5년 만의 연간 흑자 '눈앞' LCC, 동남아 노선 확 늘린다

LCC들이 2024년 상반기까지 동남아 노선에 주력할 계획으로 보도됨. 특히 겨울철 수요가 높은 휴양지를 신규 취항하거나 증편할 계획으로 알려짐. 제주항공은 인천~베트남 달랏 노선을, 진에어는 인천~베트남 푸꾸옥 노선을 12월 말부터 주 7회 운영한다고 알려짐. (아시아투데이) (<https://tinyurl.com/y6pr4kfc>)